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음 10월 17일) 제19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이뤄지나?

▶ 동학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혁명 참여자·유족들의 등록기한 연장

기념사업 종류에 기념공원 명시 등이 골자

유성엽 의원 "헌법전문 포함도록 최선" 강조

유성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오던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유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선양과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약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역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전복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길'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

차도·인도 구분 없어

그동안 사고 위험 노출

전주시, 아중로~제일로 정문

2600m 구간 인도 조성키로

해마다 남들래 선형을 베풀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다니는 천사의 거리가 보행하기 좋은 도로로 탈바꿈 된다. 이 도로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오가는 길로 유명하다.

전주시는 천사의 거리인 아중로에서 제일로 정문에 이르는 2600m 구

간에 보행로(인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아중로까지 연장 90m 폭 2m의 인도를 조성하기도 했다.

〈관련기사4면〉

천사의 거리는 그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노출돼 있었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천사의 거리를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리의 담장에 아트 타일을 활용한 기억의 벽을 조성해 얼굴 없는 천사와 나눔의 이미지를 담아낼 예정이다.

천사의 거리의 인도와 기억의 벽 조

성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천사 쉼터와 마을에 탐방객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기부문화 확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천사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도 개선과 화단 펜스, 가림막 및 화단대 설치, 페·공가 매입·정비, 공동텃밭(7곳) 조성 등을 추진했다.

특히, 기부천사 쉼터의 경우 얼굴 없는 천사의 선형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57㎡ 부지에 총 4억6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2월 완공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지난 1일 전주에서 진행된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신랑(남성주자)이 성화봉송을 들고 풍물패와 함께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부를 만나는 전통혼례 신행행렬을 재현하는 꽃가마 봉송이 진행됐다.

2018 평창올림픽 전북지역 성화봉송 마무리

빛나는 불꽃, 전주 넘어 군산까지

전주에선 전북현대 이등국 등이 주자로 나서

한옥마을 꽃가마 봉송, 시민들의 관심 끌어

익산·군산서도 진행... 군산시청 조정팀 참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성화가 전주를 환하게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지난 1일 전주역에서 출발해 종합경기장, 한옥마을, 완산소방서, 경기전 등 전주 전역에서 펼쳐졌다.

이날 성화봉송에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기능선수자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김중연 조각장이 첫 주자로 성화를 들으며, 올해 동계체전 쇼트트랙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동계종목 기대주인 김희원 학생(서신중)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또한,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이등국 선수와 최강희 감독이 성화봉송 공식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신랑(남성주자)이 성화봉송을 들고 풍물패와 함께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



성화를 환영하는 전주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전북현대 이등국.

며 꽃가마 탄 신부를 만나는 전통 혼례 신행행렬을 재현하는 꽃가마 봉송이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꽃가마 봉송 집회에는 황순 이석 씨를 비롯해 중앙초 학생 70여명이 시·도를 경유한 2018km를 이동하

는 분위기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전 광장에서는 완산풍물패와 타악연희원 '이취', 실장고와 B-boy의 만남, 꽃발정이 실버무용단, 전자현악 '바이올렛' 공연 등 성화봉송 행렬을 맞이하는 다채로운 축하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전주를 밝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는 2일 익산지역을, 3일에는 군산지역을 밝혔다.

〈관련기사7면〉

그중, 군산에서의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군산시청 조정팀 8명과 공개로 모집한 일반시민 66명 등 총 74명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혜당약국을 출발해 근대역 사박물관까지 총 20.2km 구간(주자 15km, 차량 5.2km)을 달리며 구간마다 응원을 나온 군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한편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경유한 2018km를 이동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달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